

## 「월간 낙농육우」 축산인의 눈과 귀가 되는 전문지가 되기를...

이상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의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월간 낙농육우 임직원과 낙농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육우농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최신 축산기술의 제공을 통한 축산업계의 경영합리화에도 크게 기여 해왔습니다. 25년이라는 월간 낙농육우의 발자취는 우리 축산업계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 농업생산액 36조 1,555억원 가운데 축산생산액은 10조 8,399억원으로 이미 쌀생산액을 앞서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의 자구노력과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농업개방화·국제화의 물결은 우리 농업, 특히 낙농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쇠고기와 분유 등 낙농제품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낙농산업은 1995년 수입자유화 이후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수입이 곤란한 백색 시유(市乳) 생산에 국한되어 왔으나, 그마저도 생산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낙농관련 단체들도 우유잉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와 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유·쥬스 등 대체음료와 기능성 음료의 소비확대로 우유소비기반이 잠식당하면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앞서 낙농가의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층의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와 우유의 학교급식 전면시행에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업계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우유 및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개방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유팩에 젓소이력서를 기록하는 안심마케팅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조사료생산의 확대에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부채경감조치와 이율감면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FTA기금을 늘리고 지원폭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가에서는 적정량에 대한 생산감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어도, 튼튼한 농업의 기반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 미국, 프랑스처럼 든든한 농업과 농촌의 배후를 가지고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촌을 국토

의 주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업계, 농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월간 낙농육우가 국민과 낙농업 간의 건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낙농업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는 낙농인의 대변지로서, 거센 개방화의 물결을 헤치며 힘차게 뺏어나가는 낙농산업의 앞날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난 25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 낙농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으로서 축산인의 눈과 귀가 되는 전문지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농문제 해법 찾아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먼저 「월간 낙농육우」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월간 낙농육우」가 낙농육우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낙농육우

인의 권익 대변에 힘써 우리 낙농육우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치하 드립니다.

우리나라 낙농역사를 돌이켜 보면 1960년대에 낙농진흥법, 초지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